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미국 인공지능 개발사와 정부 간 협업 메커니즘



미국 군사 전문 온라인 저널인 War on the Rocks는 지난 5월 29일, 미국 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드워케쉬 패텔(Dwarkanish Patel)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인공지능(AI) 개발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였다. 인터뷰에는 젠슨 황과 다리오 아모데이가 참여하였다.

지난 5월 29일 War on the Rocks는 이들 AI 개발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미국 AI 개발기업과 미국 국방 및 국가안보 기관 간 협력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우선, 이들은 그동안 미국 AI 개발기업들이 미국 국방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이들은 중국 AI 개발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및 중국군의 요구와 재정적 지원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은 결국 특정 ‘최종 사용자(end-user)’의 요구에만 종속되는 구조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두 AI 개발기업은 국방 및 국가안보 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 기능을 재정립하는 메커니즘(mechanism of transmission function)’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미국이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대규모 데이터 자산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활용 확대와 제한 조치를 반복하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민간 기술과 국가안보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냉전 시기 일본의 도시바(Toshiba)가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을 소련에 제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첨단 AI 기술과 반도체가 경쟁국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 미국 AI 개발기업인 앤트로픽(Anthropic)과 미국 국방부 간 협력관계 구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해당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된 사례가 미국 AI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오픈AI(OpenAI)의 샘 알트먼은 내부 메모를 통해 “이는 미국 내 모든 AI 개발기업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Anthropic과 미국 국방부 간 사례를 향후 미국 AI 개발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최종 기준선(Red Line)’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대부분의 미국 AI 개발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정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협업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이들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스타트업 AI 개발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적 갈등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미국 AI 개발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AI 알고리즘과 첨단 반도체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난 6월 3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새로운 행정명령^(EO)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립하고 AI 연구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첨단 기술^(consequential technology)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AI 모델과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와 AI 개발기업 간 협력이 단순한 기술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AI 기술과 반도체의 활용 및 이전에 따른 안보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국은 AI 개발기업과 국가안보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기술 통제, 수출관리 및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더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 이미지 설명 :
왼쪽부터 드워케쉬 패텔(Dwarkanish Patel), 엔비디아(NVIDIA) 창업자 젠슨 황(Jensen Huang), 앤트로픽(Anthropic) 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 * 이미지 출처 : www.wikipedia.org
- * 내용 출처: War on the Rock, May 29, 2026; White House Executive Order (EO), June 3, 2026.
- *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